

천주교 사거리 성당 예전 공소들

1. 수도(修道) 공소

수도는 북이면 백암리(白峯里)에 속하는 마을로, 백암리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가파른 골짜기인 방장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교우들은 1884년 40명, 1885년에는 11명이 살고 있었다고 하며, 수도 공소는 장성지역 공소 중 최초의 공소라 할 수 있는데, 재다가 높고 깊은 곳으로 신자수가 가장 많았다. 수도(修道)라는 말 그대로 교우촌의 중심이며 장성지역 신앙의 요람이었다. 수도에는 병인박해 때 충남 한산 독매에 살다가 서울로 끌려가서 치명한 이 임브로시오의 아들 이 도미니코(명숙)의 가족과, 이 임브로시오와 같이 끌려간 한 곳에서 치명한 김 미카엘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충남 서천 독매의 병인박해 순교자였던 이 임브로시오(1869년 서울) 가족뿐 아니라 감수환 추기경의 조부(金輔鉉, 요한)와 그 가족도 이 곳 수도로 피신하였다고 한다. 20여 년 전만 해도 4세대의 교우들이 살았던 수도(修道)는 1984년 12월 17일 마지막으로 한동규(로마노)가 인근에 있는 백암리로 이주함으로써 이제는 인적이 없는 곳이 되었다.

2. 만골 공소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竹淸里)에 있는 이 곳 만골은 백암리에서 고창으로 가는 지방도를 따라 오르면 양고살재(양실재) 못 미쳐 대평리(청운마을 추정)에서 오르는 길과 마주하는 곳이다. 백암리에서 약 4km, 대평리에서 1.5km 거리의 지점인데, 죽청리 수지의 수맥이 이 곳을 통과하며 방장산 남쪽에 위치한다. 만골 공소는 1882년 류(柳達藥, Ludon Nicolas Androle Liouvil) 신부가 창설한 곳으로 논밭을 일굴 수 있는 넓은 들이 있고 담장을 쌓았던 흔적이 남아 있다.

3. 매암(梅峯, 매남) 공소

북이면 문암리(文岩里)에 소재한 매암 공소는 1882년 류(柳) 신부에 의해 창설된 곳이다. 원래는 임(林)씨의 선산이었는데, 이곳에 교우들이 정착하여 교우촌을 이루었다. 당시 교우는 41명이었다. 이해천(이교보, 1921년생)의 고조부 이봉귀(李鳳貴, 1800~1859)는 서울 흥원원장으로 있다가 대원군의 박해로 이듬해 이기원(李其元, 1842년생)과 함께 영광으로 피신, 쇠장골(공근이), 점골, 매남 등지로 옮겨 살아왔다.

그래서 매남은 이씨 가족들에 의해 북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지금은 대부분 이사하고 40세대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의 매남 공소 건물은 장성본당의 9대 도(阜) 신부가 가산 공강 공소를 뜯어 옮긴 곳이다.

4. 대악(大岳) 공소

장성군 북이면 대악리는 약수리에서 약 5km, 풍기에서 1km 떨어진 곳이다. 약수리와 장성간 국도 1호선 도로변에 있으며, 주민 45세대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1884년 당시 교우는 44명이었다. 1882년 류(柳) 신부에 의해 창설되었다.

5. 입석골 공소

북이면 약수리 소재 입석골 공소는 1882년 류(柳) 신부가 창설(당시 신자 수 46명)한 곳이다. 지금은 장성호 상류와 북이면 사거리(四街里)와 양수간의 도로에 해당되는 곳인데, 약수리 화룡마을에 이르기 전 왼편 산에 서수골(西水)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그 부근에 대나무 숲이 있다. 그 곳이 예전 입석마을이다.

6. 내인동 공소

북이면 신성 2리에 속하는 내인동(1882년 柳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56명)은 남창골 자장동 입구 다리에서 우측으로 약 1.5km 정도 계곡을 따라 오르면 집목림이 우거진 좌편 산에 안장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서 교우들이 살았다.

7. 서당골 공소

서당골 공소(1883년 류 신부가 창설)는 북이면 약수리 백양사 입구에서 왼편을 바라 보면 지금의 백양산장과 정음여관이 보이는데, 그 뒤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교우들이 살았던 곳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500m 정도 올라가 계곡이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 쪽이었는데, 그 곳을 중심으로 교우촌을 이루었으며 당시 교우 수는 23명이었다.

8. 불바래기 공소

북이면 신성리(新城里) 2리에 속하는 불바래기 공소는 지금의 북이면 남창골 남경성 기도원 우측으로 집목림이 우거진 골짜기를 따라 오르면 2km 지점에 몽게폭포가 있고 작은 소나무가 있는 동산이 있는데 부근에 갈대숲이 우거진 곳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깊은 골짜기이다.

9. 점골 공소

점골 공소(1884년 류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29명은 북이면 문암리 재암(濟岩)마을 저수지를 지나 건너편 산골짜기이다. 산골짜기 중앙에 동산이 있고 그 주변에 집목림과 갈대숲이 우거진 곳에서 교우들이 살았다.

10. 퇴야동 공소

북이면 문암리에 있는 퇴야동은 장성-고창 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의 성진원 입구 못 미쳐 도로 우측으로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교우들은 약 500m 더 오르는 골짜기에서 살았다.

11. 어은골(鷹鵞) 공소

북이면 죽청리에 소재한 어은골(鷹鵞)은 금강(金良)마을에서 왼쪽 골짜기이다. 1883년 장(약술, 요셉, J. Vermore, 1860~1937) 신부에 의해 창설(당시 신자 수는 82명)된 이곳은 취약지구로 선정되어 1980년 밀정 인근마을로 모두 이주하고, 한 세대만이 낙농업을 하며 살고 있었다.

12. 갈재 공소

북이면 원덕리(原德里)에 속하는 갈재 공소(1882년 장 신부가 창설)는 전남과 전북의 경계인 노령산맥의 능선에 자리하고 있다. 노령터널이 있기 전에는 서울을 왕래하는 재의 국도가 이곳을 통과하며, 겨울에는 많은 눈으로 인해 교통이 두절되기도 하는 가파른 곳이다. 창설 당시에 101명의 교우가 있었다.

13. 풍기 공소

장성군 북이면 대악리 소재한 풍기 공소(장 신부가 창설, 당시 교우 수는 23명은 정사마을과 대방마을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다. 지금은 주민 20여 호가 살고 있을 뿐 교우는 없다. 1898년 알베르트 드애(金學衡) 신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 곳의 예비자들이 관창의 공갈과 증상모락으로 상당기간동안 세례를 받지 않고 있다' 라고 했다.

14. 감나무골 공소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목란마을에 속하는 감나무골 공소(1882년 장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38명은 새터마을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깊은 골짜기이다. 초대 신자들이 움막을 지어 살았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 피난생활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15. 신시동 공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산리 산정마을에서 약 1.5km 뒷산 계곡에 위치한 신시동 공소는 1893년 조(趙鍾夏, M. Jozeau) 신부에 의해 창설된 곳이다. 1933년 사거리 본당이 설립되면서 사거리 관할 공소이기도 했다. 지금은 취약지구(1974년경)로 산정마을과 새마을촌 등 연구지를 찾아 이주하여 빈터가 되었고, 집터와 깨어진 항아리 등의 흔적만 남아 있다.

16. 상목동 공소

장성군 북이면 쌍용리 송정마을에 소재한 상목동 공소(1895년 류 신부 창설, 당시 신자 수 32명은 송정마을에서 계곡을 따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다. 1987년 주민 6호가 살고 있었고 원래는 이곳에서도 1km 더 오르는 가림봉(쌍애)바위, 불바위가 있는 산 밑에서 몇 세대가 살았다고 한다.

17. 송정 공소

송정 공소(柳, 1898년 류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41명은 북이면 쌍용리에 소재하고 있다. 6. 25 전쟁 이후에도 몇몇 교우들이 살았다고 하며, 지금은 한 사람의 교우도 남아있지 않다.

18. 등골 공소

1899년 구(具)신부가 창설하였으나 장소는 미상이고, 당시 신자 수는 63명이었다.

19. 깊은골 공소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목란(木蘭)마을에 위치한 깊은골 공소(1902년 김승연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65명은 새터(북이면 대악리)에서 남쪽으로 500m 지점의 깊은 골짜기이다. 당시 교우들은 5,6세대 정도였고 지금은 발주면에 움막터가 남아 있을 뿐 새터와 연구지를 찾아 모두 이주하였다.

20. 창방(새터) 공소

북이면 대악리에 소재한 창방(昌方) 공소(1903년 페네 C. Peynet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37명)는 대방마을의 뒷산 골짜기이다. 원래에는 창방에서 교우들이 살고 있었는데 생활의 불편을 느껴 대방마을로 내려와 이곳을 일명 새터라고 부른다.

21. 상곡 공소

장성군 북이면 만무리에 있는 상곡(上谷) 공소(1910년 명 알로이시오 신부가 창설, 당시 신자 수는 24명)는 만무초등학교(배교)에서 동북쪽으로 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교우들은 7세대 정도였으나 지금은 모두 이주하고 1987년에는 서재환(라파엘, 1936년생) 가정뿐 이었다.

22. 목란 공소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에 속하며 필성 새터와 함께 목란마을을 이룬다. 목란 공소는 새터에 4세대, 새마을촌에 2세대, 목란에 몇 세대 등 55명의 교우가 살고 있다.

23. 백암 공소

수도 공소에서 약 2km 아래인 백암 공소는 사거리에서 4km, 장성읍에서는 15km 떨어진 골짜기이다. 방장산 계곡을 중심으로 웅기중기 형성된 마을로 흰 바위가 있어 백

암(白岩)이라 불리운다. 이 곳의 교우들은 대부분 수도 공소에서 이주한 사람들로 공소 회장 서석호(인토니오, 대대로 회장직을 맡고 있음) 역시 고조부가 충청도에서 병인박해를 피해 수도로 피난해 와 살았다.

24. 중산(중퇴) 공소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에 있는 중산 공소는 어은골에서 내려와 정착한 교우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토가 부족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자 교우들은 어은골에서 여러 곳으로 옮겨갔다. 김복동(베드로)의 조부는 부안 만석동에서 박해를 피해 살다가 아들 김도현과 함께 고창 목장골에서 살았으며, 자손들은 북이면 때앗에 살다가 물란리에 재산을 잃고 어은골로 이사하였다.

25. 대평 공소

원죽청(原竹淸)이라 불리는 이 곳은 원래 남쪽으로 1km쯤 떨어진 계곡에 교우촌을 이루었던 신자들이 이주해 정착한 곳이다. 머우골, 공광골, 피아골, 개비골 등의 계곡이 있는 이 곳에서 10여 호의 신자들이 살았다. 무재를 넘으면 북이면매남, 점골, 때앗에 이르고 고창(신시동 공소)을 쉽게 갈 수 있으며, 어은골도 가까워서 지리적으로 교통면에서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그래서 대평의 교우들은 미사가 있을 때는 언제나 재를 남나들었다. 그러나 농토가 부족하고 살기가 불편하여 차츰 연구지를 찾아 이주하였다.

26. 성진원 공소

장성군 북이면 문암리에 있는 성진원 공소는 1960년 고광동(요셉, 1917년생) 형제가 정착하면서 교우촌을 이루었다. 담양 사람인 고광동은 일찍이 소록도에서 치료 중 완치된 교우인데, 귀향하지 못하고 인가가 없는 이 곳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원래는 이 곳에서도 1.5km 더 오르는 북당골에서 살았고 활동이 부자유해서 어렵게 살았다. 그 후 1963년 조광(정베드로, 1937년생), 1964년 4월에는 정하수(인토니오, 1939년생) 형제 등이 합류하게 되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진원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현 공소 건물은 김형수(비오), 장성본당 15대 주임) 신부 때(1982년) 문암리 985평을 매입하여 현대식으로 지어졌다.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친척 엘리사벳을 돕기 위하여 길을 나선 겸손과 순명의 여인 마리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이 저의 길을 떠나시는 저희를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어 목적이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갈에서 얻는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함께 나누게 하시며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희망, 사랑의 생활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순례의길을 마치면서 바치는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하합니다. 가뱀던 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을 주님께 봉헌하며 청하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참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아울러 이 세상에 살면서도 늘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상의 나그네로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굳은 믿음과 희망을 지니게 하시고 이 순례의 끝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사랑의 천상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천주교 광주대교구 도보(성지) 순례 안내 천주교 사거리성당



천주교 사거리성당



사거리성당 전경



천주교 사거리 성당

- 설립: 1935년 6월
- 주보성인: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축일: 9월 12일)

515-843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백양로 33
Tel. 061) 394-8004 / Fax. 061) 392-8048

미사시간

화·금·토요일: 19:30
수·목요일: 10:00 / 주일: 10:30

노령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천주교 사거리성당은 전남·북을 이 어주는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827년 월신 이전에 장성 인근의 북부지방에서는 몇몇 교우들이 박해를 피해 살아왔음이 확실하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로 달래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111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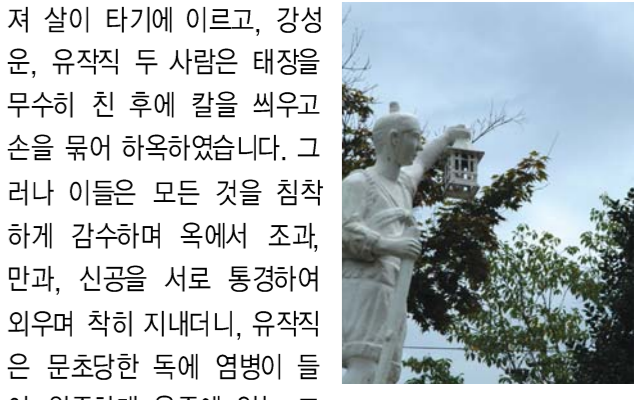
1. '1827년 2월경 전라남도 곡성지방 덕실마을의 한 용기점에서 발생한 사소한 싸움이 발달이 되어 전라도 일대가 정해박해(丁亥迫害)를 받게 되었는데 이 때 곡성, 순창, 용담, 전주, 고산, 장성지방 사람도 상당수 박해를 받았다'

2. 장성지역 최초 공소인 수도공소: 1839년 기해박해 때 충청남도 서천지방 독매에 살던 이(李)암브르시오(1869년 서울에서 순교)의 가족들이 이 곳 장성에 피신하여 방장산 근처인 수도(修島 북이면 백양리 소재)에 살게 되었는데, 수도는 이름 그대로 교우촌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곳은 장성지방 최초의 공소인 셈이다(김진소 신부 소장자료).

3. 사거리성당 순교자 유작직(문모) 안드레아: 1872년(辛未年 11. 23) 나주 무학당에서는 용담(龍潭, 전북 진안군 소재)에 살던 강성운(영원, 바오로)과 무장 암티사람 유치성(안드레아), 장성 북상면 사별리(장성면 수물지구)에 살던 유작직(문모, 안드레아) 등이 나주 포교에게 잡혀 순교한 소위 '나주 무학당 사건'이 일어났다.



사거리성당 전례(리모델링 전)



나주 무학당에서 세 교우가 치명적인 사실은 당시 함께 잡혀갔다가 살아남은 서윤경(안드레아, 장성 수도사람)이 주교님께 보고한 서한으로 알 수 있다. 그의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죄인이 전에 장성 수도에 살다가 군난을 맞아 11월 24일에 나주 포교에게 잡혀 진령 옥에 갇히니 정음 이문동에 사는 강성운이와 장성 사별리에 사는 유작직과 무장 암티에 사는 유치성 세 사람이 먼저 잡혀 형벌을 한차례 당하고 갇혀 있었는데 그간의 고통과 욕은 필설로 기록하기 어려우며, 하루는 영장이 친히 문초할 시 "너희들이 참으로 천주학을 아느냐?" 답, "과연 그러하다" 한 즉, 또 물으되 "이후에도 하겠느냐?" 답, "만 번 죽사와도 하겠나이다." 한 즉 "그러면 너희들을 죽이겠다." 하고 유치성에게는 불로 발등을 지

- 무술 11월 20일 진안 기도에서 서윤경 안드레아 서

신앙 선조들의 숨결이 깃든 사거리 성당과 옛 공소들을 걸으면서 순교자의 희생의 삶을 묵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